

## 「자매들」과 「사무엘 서」의 크로노토프

김 철 수

### I. 들어가는 말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서론 격인 첫 번째 단편 「자매들」(“The Sisters”)은, 그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마비’와 ‘경질형’ 그리고 ‘성직매매’라는 핵심어들을 통해서 작품 전체의 주요 주제를 표현하고, 아일랜드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 주제어들의 여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Bowen & Carens 2009). 비록 “아무것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수수께끼 같은 작품”(Tindall 13)이라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단편은 작가로서 조이스(James Joyce)의 “첫 번째 인생의 역작”(Staley 1)이라고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 수정된 이 단편은 그 속에 묘사된 언어에 대한 탐색, 구성의 방법론, 그리고 저작 의도를 통하여 조이스 예술의 방향성을 암시해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더니즘 문학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이 작품은 「사자들」(“The Dead”)을 제외하고 이제까지 “『더블린 사람들』에 관한 연구 비평 중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단편”(홍덕선 7)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다.

피크(C. H. Peake)가 이미 지적한대로 이 단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 소년과 죽은 플린(James Flynn) 신부의 어울림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소년 주변의 남성들, 즉 코터 영감(Old Cotter)과 삼촌 사이의 대화가 그 첫 번째 부분이고, 꿈속에서 죽은 신부의 형상을 만나 뭔가 고백하려는 신부를 보고 그의 “성직 매매의 죄를 사해주기라도 하듯”(D 11)<sup>1)</sup> 희미한 미소를 짓던 소년이 다음 날 아침 자매들의 가게 앞에 걸린 부음 게시판을 확인하고서 신부와의 기억을 회상하다가 간밤에 꿈속에서 신부가 무엇을 고백하려 했을까 의아해 하는 장면이 그 두 번째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시간에 숙모와 함께 두 자매의 집을 조문 차 방문해서 죽은 신부에 대하여 한없이 우호적이고 심지어 희생적이기까지 한 일라이저(Eliza)와 내니(Nannie) 두 자매와 숙모의 대화를 듣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이다(Peake 12).

이러한 서술 구조 속에서 화자인 소년은 더블린 내의 두 개의 적대적인 담론, 즉 정치가를 선호하고 성직자를 적대시 하는 남성들의 담론과 정치가를 혐오하면서 성직자에게 우호적인 여성들의 담론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꿈과 상념 그리고 현실 사이를 오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한낱 어린 아이로 취급하고 자신과 풀린 신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적대적인 자세를 취한 코터 영감에게 “코빨갱이 얼간이!”(D 11)라고 되뇌이며 분노를 품었던 소년은 사실 다음날 신부의 부고 게시판을 본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뭔가로 부터 해방된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서”(D 12) 언짢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주체적인 의식이 형성되기 전부터 풀린 신부를 통해 종교적 교육을 받아온 소년은 신부의 죽음 이후에 내외적으로 겪게 되는 많은 에피파니적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신부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그 죽음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깨달음에 점점 다가가게 된다. 즉 소년은 수수께끼 같은 사건과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탐구해 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해 가는 “인식론적인 구도”(박인찬 30) 속에서 의식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소년의 의식 속에서 신부는 “관속에 고요히, 엄숙하고 끔찍한 표정으로 죽어서, 텅 빈 성배를 가슴에 올려놓은 채 누워있다(D 18).”

“그 사건 [신부의 죽음]의 시초”였으나 지금은 속이 빈 채 사자의 손에 느슨하게 들려있는 성배는 “과도한 성직”(D 17)의 의무로 인해 야기된 부담감에 억눌려

1) James Joyce,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Robert Scholes & A. Walton Litz, ed.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p.11. 이후 인용문은 본 텍스트에 의거하여 D로 약하고 페이지 수만 기록함.

왔던 플린 신부에게 있어서 “사실상 그의 우상”이며, “죽으면서도 가슴 위에 올려 놓고 붙들고 있는 허상”(홍택선 17)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이 성배는 결국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하는 전통적 에피페니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내포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에피페니 부재에 대한 에피페니”(박인찬 32)를 제시하고 있는 무익한 물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여러 비평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매들」은 과중한 종교적 임무를 이기지 못하고 마비라는 질병에 걸린 플린 신부와 그 신부가 대표하는 종교를 무작정 비판하는 남성들의 정치성,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서 희생되는 여성과 어린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더블린 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종교적, 가정적 마비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고 종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형식과 내용 사이의 조화로운 협력관계에 의해 도출되는 이러한 명백한 주제를 재고하게 하는 새로운 시도도 가능하다. 그러한 시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밀접한 관계성에 근거한 바흐진(Mikhail Bakhtin)의 크로노토프(Chronotope) 이론이다.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확장한 “사회-역사적 관계의 특수한 복합체”이자,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전기와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와 ‘지리착오’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경이로움, 예측할 수 없는 끊임 없는 변화, 그리고 비종결적 결말을 가능하게 하는”(김옥동 79-81) “소설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건들을 조직하는 중심”이며 “이야기의 매듭이 맺어지고 풀어지는 곳”(Bakhtin 250)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크로노토프가 그러한 외형적 주제 뒤에 감추어져 있는 무의식을 드러내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자신의 조국 아일랜드를 “마비시키는 종교”(Joyce 2000, 123)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장과정을 지배하다시피 해 온 가톨릭과 성서의 영향력이 조이스 자신의 저작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며, 그 결과가 그의 작품의 무의식의 층위에서 드러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본 논문에서는 「자매들」과 유사한 시공간적 구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구약성경 「사무엘 상」의 크로노토프를 분석하여, 그것이 「자매들」과 공유하고 있는 구조적, 주제적 측면을 비교하고, 이 단편 속에 투영된 성서 속의 크로노토프의 구조와 그 함의가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 II. 크로노토프와 문학, 그리고 사무엘서

### 1. 크로노토프와 문학

바흐친에 의하면 크로노토프는 “문학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연관성”(Bakhtin 84)이다. 그리고 그것은 작품 속에 재현된 세계의 외부에 존재하며, 작가와 등장인물, 그리고 청중이나 독자의 세계의 일부를 구성하여 서로 대화적 관계를 유지하며 가능한 객관적 현실을 예술작품의 세계로 “구조화하여 재현하는 수단”(이병훈 184)으로 사용된다. 즉 한 작품 속에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이식된 특정한 크로노토프와 등장인물이 예술적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로노토프 그리고 독자나 비평가가 자신의 인식범위 내에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다시 만들어내는 크로노토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크로노토프가 각각 상호 견제와 보완의 기능을 통해서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작가가 의도한 시공간과 그 사이에 침투되어 있는 다른 시공간의 의식들 사이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크로노토프가 형성되고, 이렇게 지각된 크로노토프는 작품 안의 모든 요소들을 마치 선형적인 것처럼 제약하고 일정한 방향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문학 작품 안에서 크로노토프는 작가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선택되고 배치되는 듯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작품의 무의식적 층위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견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김경아 211).

다시 바흐친의 말을 인용하자면, 크로노토프는 “장르와 장르적 차이점들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또한 “형식적 구성범주로서의 크로노토프는 문학작품 내의 인간 형상도 크게 좌우한다”(Bakhtin 84-85)고 말하고 있다. 즉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환경에 반응하는 등장인물의 사고와 행위가 그 작품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성격이 그 작품의 장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작품의 존재기반으로서의 크로노토프는 “독자의 창조적 인식의 과정을 매개로 해서 작품 자체를 끊임없이 변화, 확충시켜”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교환작용을 크로노토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더 나아가서 “작품과 삶 사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또 “개별 작품에 독자적인 생명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창조적 크로노토프”를 구성하게 해 준다(Bakhtin 254). 이와 같은 이

론적 기반 위에서 구약성서 중 한 권인 「사무엘 상」(“The First Book of Samuel”)의 전반부를 읽어보면 『더블린 사람들』의 첫 단편인 「자매들」과 매우 유사한 시공간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사무엘 상」의 크로노토프: 집단적 회개와 개혁

### 1) 사무엘서의 의의

상, 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사무엘 서」는 이스라엘의 건국과정에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역할과 각각 이스라엘의 1, 2대 왕이었던 사울(Saul)과 다윗(David)의 전쟁과 정치편력을 기록한 책이다(정규남 2000). 이 책은 또한 혼란기였던 사사시대, 즉 소위 판관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전쟁 영웅들의 시대에서 안정된 왕정의 시대로 전환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 및 종교 개혁가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건국과 그 발전과정에 깊이 개입하여 메시아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이학재 163-173). 한 나라의 건국과 초기 발전과정을 전반적으로 기술한 책의 이름에 그 중심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 책이 사무엘의 활동에 관한 기사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의 정신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국의 정신을 형성하였으며, 또 그의 정신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다(텔리취 15).

### 2) 주요 줄거리

「사무엘 서」의 배경은 영웅들의 시대가 끝나고 종교적 수장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이끌던 시대였다.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였는데, 그는 이미 나이가 많고 그 대를 이을 아들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성경은 그들의 죄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으랴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찢어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만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 상 2장 12-17절)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과 아들들의 타락을 온전히 금하여 교육시키지 못하는 늙은 엘리 대제사장의 육체적, 정신적 마비상태는 마치 조이스의 눈에 비친 아일랜드의 종교적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조직과 제도에 일체화되어 있는 휘장 속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경에는 이러한 시기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자녀가 없어서 번민하던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사무엘 상 1장 11절)라고 한다. 이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애타게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대제사장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사무엘 상 1장 14절)고 함부로 말 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나로부터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대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사무엘 상 1장 18절)로 기원해 줌으로써 그녀를 위로하여 보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태어나게 된 사무엘은 곧바로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보내져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교육을 받는다. 어린 사무엘이 늙은 엘리 대제사장에게서 신앙교육을 받는 것은 「자매들」의 소년이 늙은 신부에게서 교리와 라틴어를 배우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 부르심을 받게 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 상 3장 1절-9절)

세 번의 부르심을 놓친 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된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 집안이 무기력과 마비된 신앙심으로 인하여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자신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임을 알게 된다. 「자매들」의 화자 소년이 세 번씩이나 노 신부의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도 그 내용과 구조적 성격상 사무엘의 세 번의 부르심의 경험과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정복전쟁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각성 운동을 주관하고(사무엘 상 7장 5절-6절)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는 사울(Saul)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 신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 군주 시대를 열게 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통치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격다짐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분노를 샀으나,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왕의 제도를 허락하게 된 것이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 상 8장 5절-9절)

이처럼 하나님의 직접통치의 시대에서 왕권통치의 시대로 변화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은 왜곡된 종교적 권위에 의한 인간의 마비적 타락이 극도에 달해 있었고, 그러한 상황은 늙은 엘리 대제사장의 무기력한 권위와 젊은 아들들의 끝없는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전쟁의 패배의 결과로 형상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크로노토프는 종교적, 정치적 마비와 개인과 가정의 위기, 그리고 계속되는 식민지 생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꺼이 억압받고 있는”(D 42) 더블린 사람들의 시공간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결국 당시의 이스라엘의 크로노토프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개인적 타락과, 성직매매와 다름없는 종교적 타락, 그리고 그로인한 정치적 마비 상태로 점철되어 있는 정신적, 물리적 경멸형의 상태와 다름없는 형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집단적인 회개와 개혁의 프로그램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 즉 선지자의 출현이었던 것이다.

### III. 「자매들」의 크로노토프: 선지자의 출현

조이스의 본래 의도에 따르면 「자매들」은 더블린 생활의 “마비”를 주제로 1904년 8월에 『아일랜드 농장』(*Irish Homestead*)지에 하나의 단편으로 기고될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동안 조이스는 이 단편을 확장시켜서 한 권의 단편 소설집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단편들을 그는 소환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piclesis*”에서 차용한 “*epicleti*”라고 명명했다(Bowen & Carens 204). 후에 그것은 성찬미사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시켜주시기를 기원하는 기원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보우웬과 카렌스는 조이스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예술가의 창조적

행위는 곧 신부의 축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찬의식과 유사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준다”(Bowen & Carens, 204)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이(Codell D. K. Yee)는 ‘비난’과 ‘기원’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epiclesis”라는 용어 속에는 “조이스가 작품 속에서 더블린의 사람들이나 환경에게 취하는 비판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행동의 변화에 대한 작가로서의 회구가 함축되어 있다”(32)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조이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서의 영향력이나 혹은 진정한 의미의 종교성에 대한 강력한 표출이었다고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뒷받침되기 때문인데, 그 근거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본 단편의 초기 저작 및 수정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애초에 계획되었던 「자매들」의 초판은 첫 구상 이후 23개월에 걸쳐서 완성되었으나, 이 초판은 다시 독자들의 오해를 염려하는 출판업자인 리차이즈(Grant Richards)의 반대에 부딪혀 마침내 1906년 6월 말에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다.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ÆDALUS)라는 필명으로 1904년에 출판한 「자매들」의 수정 전 초판 첫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속 삼일 밤 동안 나는 그 시간에, 마치 섭리에 이끌린 것 마냥, 대영로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삼일 밤 내내 나는 내 눈을 들어 그 네모난 불켜진 방을 관찰했다. 나는 그 일이 밤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내 발을 인도한 그 섭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눈의 경외심 가득한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밤마다 그 네모난 창문은 같은 방식으로 불빛이 나고 있었다. 희미하게, 그리고 고르게. 내가 볼 수 있는 한 그것은 촛불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 날 밤에 그 시간에 나는 도시의 다른 쪽에 있었다. 나를 그곳에 인도한 것도 아마 동일한 섭리였을 것이다—나를 불시에 공격한 번덕스런 종류의 섭리 말이다. 집으로 가면서 나는 그 네모난 창문이 전과 같은 식으로 불빛이 비치고 있을까, 아니면 기독교인이 영면한 것을 나타내는 의식적인 촛불이 비치고 있을까를 의아해 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나는 내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을 알고서도 놀라지 않았다. (1904년 *Irish Homestead*에 발표된 「자매들」의 초본, <http://www.robotwisdom.com/jaj/dubliners/sisters04.html>, 필자강조)

1904년 초판의 첫 문단은 기독교 신앙이나 성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애당초 조이스가 구약성경 사무엘 상 3장의 첫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가능성을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마치 잠자다가 세 번씩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부르심을 받고서도 그것이 대제사장 엘리와 호출인 것으로만 알았던 어린 사무엘처럼 화자 소년 역시 삼일 연속 “섭리”에 의해 이끌리는 것으로 이해했던 자신의 발견을 죽어가는 노신부의 방 창가로 옮기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도시의 다른 지역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저녁 식사시간에 자기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I was not surprised, then, when at supper I found myself a prophet.”). 물론 이 문장의 문자적 의미는 신부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예측 또는 예견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는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성경 속의 선지자보다는 오히려 어떤 특정한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극히 종교적인 용어인 “섭리”라는 단어나 문단에 내재된 종교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선지자”라는 단어는 또한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 혹은 판관이자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세 번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 대제사장의 처소로 갔던 어린 사무엘도, 네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대제사장의 처소가 아니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듣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04년 판본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두운 고해소 안에 앉아서, 눈을 멍하니 크게 뜬 채, 부드럽게 스스로 웃고 있는 듯한”은 노신부의 에피파니적 형상과 “그제서야 그들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가족들의 관찰이 드러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시기를”(http://www.robotwisdom.com/jaj/dubliners/sisters04.html)이라는 경건한 구절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의 출발점으로서의 『더블린 사람들』의 첫 단편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순종하며 물리적, 정신적 마비에 빠진 조국의 영혼을 구할 ‘선지자의 크로노토프’를 구현할 주체를 찾아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출판업자와의 수많은 협상이 있는 후 1914년에 최종적으로 출판된 판본의 첫 구절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이번에는 그에게 희망이 없었다. 세 번째 줄도였기 때문이다. 밤마다 나는 그 집을 지나면서(마침 방학 때였다) 불이 켜진 네모난 창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한결같이 불이 희미하고 차분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만일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캄캄한 커튼에 촛불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두 자루의 양초를 시체 머리맡에 세워두게 되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라고 그분은 내게 가끔 말했지만, 나는 그분의 말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제야 나는 그 말이 참말임을 알았다. 매일 밤 그 창문을 자세히 쳐다볼 때 나는 마비라는 말을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말은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정절형이라는 말이나 교리문답서의 성적매매란 말처럼 언제나 이상하게 들렸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어떤 해롭고 죄 많은 존재의 이름처럼 들렸다. 이 말은 공포로 휩싸이게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죽음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 그 치명적인 위력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D 9)

리쯔(A. Walton Litz)는 「자매들」의 1904년 판 초고와 1914년 판 수정본 사이의 변화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유년시절부터 시작되어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더블린 사람들』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초점을 가정과 자매들로부터 어린 소년의 의식과 행동 내용으로 옮겨 놓은 것이 그 첫 번째 변화이고, 둘째는, 초고에서 단순한 병자로 서술되던 신부에게 “마비”라는 병명을 부여하여 더블린의 일반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더블린 사람들』의 총체적인 주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의 경험에 꿈의 내용을 첨가하여, 그로 하여금 신부의 성적매매 죄를 사해주는 또 다른 신부로 자신을 여기게 하거나, 저녁시간에 문상을 갔을 때, 성찬을 의미하는 과자와 쉐리주 음복을 거부하다가, 후에 영성체에서 평신도에게 제공되는 과자 대신 신부를 위하여 보존된 포도주를 상징하는 쉐리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소년과 신부직과의 연관 관계를 암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Litz, 84-85). 그는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변경 내용들은 이 이야기를 “『더블린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들과의 일관성과 전체적 유형을 이루기 위한 것”(85)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작의 개작과정에 대하여 이(Yee)는 여러 비평가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본래 사실적이고 정확한 묘사를 위해 세심하게 언어를 사용했던 조이스가, 결과적으로는 인식론적, 혹은 도덕적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은 셈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개정된 「자매들」에서는 피셔(Therese Fischer)의 말대로 “믿을만한

화자가 믿을 수 없는 화자로 바뀌었고,” 이야기의 내용은 모리시(L. J. Morrissey)의 표현대로 “더 현대적으로 변했으며,” 그 해석의 방식에 있어서는 맥케이브(Colin MacCabe)가 주장한 대로, “‘의미의 잉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해석의 가능성이 배제되었다”(29)는 것이다.

이 새로운 판본에 등장하는 소년 선지자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섭리에 의해 움직이던 종교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에다 다소간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가 첨가된 것 같은, 웬지 모르게 좀 더 세속화되고 성숙해진 모습이다. 마비라는 말은 처음 그에게는 그저 이상하고 낯선 언어로 들렸던 것인데, 이제는 “해롭고 죄 많은 존재”로 의인화되어 화자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소년을 매혹시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 죽음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서 그 치명적인 위력을 들여다보고 싶은”(D 9)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신부의 죽음에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년의 태도는 턴달(York Tindall)의 말대로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에서 커어츠(Kurtz)의 죽음의 순간으로 점점 다가가는 말로우(Marlow)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여기에는 초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건하고 침착한 신앙적 분위기보다는 인간적인 의구심과 호기심의 요소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완전한 신정국가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신들만의 왕을 세워 군주 국가를 세우기를 희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군왕의 옹립을 허락했던 것처럼, 작가인 조이스 자신도 더블린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섭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와 인간적인 지혜와 용기를 지닌 새로운 인물을 그의 새로운 도덕사의 중심인물로 옹립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소년은 노신부가 살아있을 때 했던 “나는 오래 살지 못할거야”(D 9)라는 말을 당시에는 부질없는 말로 여겼었지만, 이제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요한복은 14장 19절에서 예수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듯이, 신부 역시 그의 죽음이 헛된 세상과의 작별임과 동시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임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년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 판본의 마지막 부분은 1904년의 초판본에서 나타난 경건한 종교적 위로의 표현보다는 고해소에서 정신을 놓아버린 노신부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판본에서 조이스는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초고를 쓸 당시 조이스의 마음속에는 엘리 대제사장 시절의 이스라엘과 같은 정신적, 물리적 혼란과 타락을 겪고 있는 아일랜드에 진실로 새로운 인물, 즉 영적 대각성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 인물은 출애굽기 이후의 지도자처럼 제 1세대가 아닌 2세대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타락한 정치와 종교 제도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숙부나 숙모 또는 코터 영감 등과 같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받은 종교적 교육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순전한 모습을 띠고 있으나, 아직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소년 같은 인물을 설정했을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 도입부에 나오는 세 단어들이 『더블린 사람들』의 세 가지 주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마비는 목적론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등장인물들의 병리적 무능력을 의미하고, 경절형은 발육이 저해되거나 불구가 된 상태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으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불완전성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성직매매는 그들의 탐욕과 금전적인 이유로 인한 자신과 타인들의 타락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자매들」을 개작함으로써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들을 새로운 선지자 인물의 탄생을 위한 크로노토프적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로 독자들은 등장인물들이 뭔가 더 큰 것, 즉 어떤 종류의 추상개념이나 유형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의 중심에는 더블린의 엘리 대제사장인 플린 신부가 있다. 이 이야기에서, 그는 아버지가 없는 소년에게 대부의 역할을 함으로써, 더블린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가톨릭의 신부로서 더블린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의 실제적인 마비상태는 그를 생기가 없이 끊임없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또한 경절형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는 육체적으로 결점이 있고, 한 사람의 신부로서도 그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을 불러온 질병인 마비는 성찬의 상징인 성배의 파괴와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실수로 성찬의 상징인 성배를 깨뜨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죽은

그는 그의 관 속에서 미사집전 시의 복장으로 그의 큰 손을 느슨하게 성배에 던져 채로 엄숙하고도 풍성하게 누워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매우 “끔찍하고, 회색이며, 거대한 덩어리처럼”(D 14) 보인다.

죽은 신부를 조문하러 가서 신부의 두 자매와 함께 신부의 시신을 본 소년과 숙모는 그 후 이 작품에서 성찬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웨리주와 크림 크래커를 맛보도록 제안을 받는다. 소년은 크래커를 거절하고 술은 손대지도 않는다. 그러나 숙모와 두 자매 사이에서 오고가던 신부의 문제와 질병에 대한 대화를 듣던 중, 대화가 끊기게 된 짧은 순간에 웨리주를 약간 마시게 된다(D 17). 이 시기에는 신부들만이 성찬식에서 와인을 마시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죽은 스승에 대한 동정심의 행위이자, 자신과 그 신부를 동일시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Bowen & Carens, 2008).

그러나 이 상황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결국 이 소년은 죽은 플린 신부가 깨진 성배로 인하여 다 하지 못한 성찬 행위를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동안 신부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외부에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반응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던 소년은 스스로 행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리쓰의 말대로, “신부가 그를 위해 가졌던 ‘위대한 욕망’을 감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Litz 85) 새로운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행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소년이 이처럼 자발적인 성찬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던 ‘위대한 스승’의 ‘실패한 인생’에 대한 숨겨졌던 사실을 접하고 그동안 자신을 가려왔던 스승의 그림자가 벗어졌음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성찬을 경험하기 전 소년의 기억 속의 노신부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D 13) 스승이었고, 그 스승이 가르쳐준 “성찬과 고해의 비밀에 관한 신부의 여러 가지 의무는 너무나 준엄한 것”(D 13)이었다. 또한 그는 그 전에 꿈속에서 만난 스승에 대하여 두려움과 의아함이 엄습한 나머지 그의 성직 매매의 죄를 사면해 주려는 태도마저도 “연약할”(D 11) 수밖에 없었다.

깜깜한 방에서 나는 그 중풍환자의 둔중한 회색빛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담요를 머리 위까지 뒤집어쓰고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 회색빛 얼굴은 여전히 나를 뒤따랐다. 뭔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무슨 중요한 일을 고백하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내 영혼이 어떤 즐겁고 사악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 얼굴이 나를 보자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왜 그것이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있으며, 왜 그 입술이 저토록 침으로 젖어 있을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그러나 이내 나는 그가 중풍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고, 나 또한 그의 성직매매의 죄를 사면이라도 해주는 듯 펄쩍 웃고 있음을 알았다. (D 11)

사실 소년에 대하여 남다른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이 신부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함으로 아이를 가르쳤던 것이다. 이처럼 버거운 교육과정이 가져다 준 부담감과 외구심, 그리고 그로인한 불안함으로 인해 그동안 소년은 성인들의 담론 사이에서 침묵을 지키며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 왔다. 그러나 셰리주를 마신 이후 그러한 감정을 일시에 극복한 소년의 의식 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관 속의 신부가 아직도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공상”(D 14)을 했었고, 그의 눈에 보이는 신부는 “엄숙하고, 커다랗게 누워 있었으며, 그의 큼직한 손은 성배를 느슨하게 쥐고 있었다.”(D 14). 그러나 성찬을 행한 후 그의 눈에 비친 신부의 모습은 여전히 “엄숙하고 끔찍한 모습”(D 18)이긴 했지만, 가슴에 “텅 빈” 성배를 얹은 채 관 속에 “조용히” 누워있었다. 요컨대 소년의 의식 속에서 죽은 사제의 이미지는 크고, 무섭고, 엄숙한 적극적인 모습에서 공허하고 조용한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소년이 스승의 파종한 교육적 영향력과, 그로인한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죽은 신부의 이미지를 지탱해 왔던 영향력의 공허함을 간파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한 소년은 이제 더블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지자적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IV. 결 론

조이스 자신 뿐 아니라 많은 독자와 비평가들이 인정하고 있다시피, 20세기 초엽의 더블린은 ‘마비의 중심’이다. 생중사의 인간들이 더블린을 마비시키고, 그러한 더블린의 환경은 인간들을 다시 마비시킴으로써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비우스의 띠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황무하고 무익한 도시이다. 『자매들』에서 죽어가는 신부의 집 앞을 서성이던 소년의 상념 속에 되뇌어지던 ‘마비,’ ‘경절형,’ 혹은 ‘성직매매’ 등의 어휘들이 작품 곳곳에 내포/외연적으로 분포되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어두운 잿빛으로 채색하고 있다.

그러한 잿빛의 암울한 그림자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조이스를 대신한 스티븐이 탈출을 선언하는 “가정, 국가, 교회”(A Portrait 247)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드리워진 것이며, 여기에 덧붙여서 제국주의와 그 그림자인 식민지의 현실이라는 집단적인 상황이 사실상 그 어둠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조이스의 초기 작품들에는 그러한 모더니티의 결과물인 갖가지의 제도 속에서 희생당하는 주체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암울한 환경 속에서, 조이스는 모더니티와 식민주의의 그물 속에 갇혀서 마비된 삶을 사느라고 자신들의 상황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대중”(Letters II, 134)에게 “특유의 부패의 악취가 떠돌아다니는”(Letters II, 123)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더블린 사람들 자신들에게 더블린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더블린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을 쓰겠다는 야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도덕사의 목적은 ‘지저분한 더블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서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비의 현주소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확히 보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조이스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또한 많은 비평가들도 그렇게 이해해 오고 있다.

그러나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한 폭로의 의도와 더불어 그 속에 감추어진 회복과 치유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회구를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가능성은 바흐쾰이 제시한 ‘크로노토프’ 이론을 바탕으로 성서의 유사한 부분과 비교해서 본 단편들을 읽었을 때 나타나게 된다. 특별히,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의 어린 주인공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비

와 경절형, 그리고 성직매매와 같은 부패와 타락의 중심지인 더블린에서 태어나 성인들의 마비된 삶을 무의식적으로 전수받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동적, 객체적 인물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 보면 그들은 비록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화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수용하고 개선해서 진실로 ‘도덕사의 한 장’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개인들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자매들」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년도 비록 그의 의식적 성장의 과정에서는 부모도 없이 숙모와 숙부의 슬하에서 양육되고 신부에게 종교적 교육과 영향력을 받으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정치적 지도자로 부름받고 성장하게 되는 구약성경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크로노토프가 투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작가의 초기 의도와 출판 환경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1904년에 기록된 초본과 1914년에 출판된 최종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주제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더블린의 개인과 집단에 만연해 있는 종교적 마비와 경절형의 사회상에 대한 폭로와 그를 통한 반성의 촉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작품과 동일한 크로노토프 선상에 있는 「사무엘 서」와 본 단편을 비교하여 재독한 결과, 이 작품 속에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영도할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 비견할만한 더블린의 새로운 선지자에 대한 소망이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선지자는 「출애굽기」의 1 세대처럼 신에 대하여 알고 있으나 순종하지 않는 더블린의 기성세대의 인물들이 아니라, 어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서의 교리를 받아들여 내재화하고, 아직은 세속에 물들지 않아 성품이 깨끗하고, 그러나 분명한 자의식을 통해 내적 성숙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화자 소년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조이스가 그의 저작 의도에서 밝힌 바 있는 ‘조국의 도덕사’ 속에서 독자들은 마비된 조국의 도시와 그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삶의 양상에 대한 고발과 비난 그리고 조롱과 혐오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개인적 신앙의 회복과 집단적 종교적 개혁, 그리고 그 중심에 설 새로운 선지자의 출현에 대한 무의식적 회구를 조심스럽게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대)

## 인용문헌

- 김경아. “『남도사람들』연작의 크로노토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2003): 208-233.
- 김종건. 『더블린 사람들/ 비평문』. 서울: 범우사, 1997.
- 텔리취, 카일. 『구약주석: 사무엘 상.하』. 최성도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0.
- 리쯔, 윌튼. 『제임스 조이스』. 김종건 역. 서울: 탐구당, 1979.
- 박인찬. “내재, 초월 혹은 사라짐, 그 이후: 조이스의 『자매들』과 핀천의 『브리』, 『제 49호 품목의 경매』에 나타난 계시와 인식의 문제.” 『제임스 조이스 저널』. 6(2000): 23-41.
- 성경전서(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5.
- 이병훈. “예술적 공간을 보는 두 가지 관점: 바흐친과 로트만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12(2002): 169-89.
- 이학재. 『구약성경에서 배운다』. 서울: 이레서원, 2001.
- 정규남. 『구약개론』.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 홍덕선. “조이스의 언어실험: 『자매들』의 'idle/idol'을 중심으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 2(1996): 5-18.
- Bakhtin, Mikhail. *The Dialogic Imagination*. Trans. & Ed.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 Bowen, Zack & James F. Carens ed.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London: Greenwood Press, 1984.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8.
- \_\_\_\_\_. *Occasional, Critical and Political Writing*. Ed. Kevin Bar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s. II & III. Ed. Richard Ellman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Joyce, Stanislaus. "James Joyce: A Memoir." Trans. Felix Giovanelli. *Hudson Review* 2(1949-50): 502.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London: Edward Arnold, 1977.
- Staley, Thomas F. "A Beginning: Signification, Story, and Discourse in Joyce's 'The Sisters'." 『제임스 조이스 저널』. 1(1987): 1-15.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5.
- Internet Source: <http://www.robotwisdom.com/jaj/dubliners/sisters04.html>(2007. 4. 30)

## Abstract

### The Chronotope in "The Sisters" and "The First Book of Samuel"

Kim Cheol-soo

As many readers and critics, including Joyce himself, admit, the city of Dubli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s the 'center of paralysis,' in which the vicious circle of paralysis repeats with the living-dead prevailing the city.

Such key words as 'paralysis,' 'gnomon,' and 'simony,' hovering over the consciousness of the boy in front of the dying priest's house, permeate every part of the work, tainting the whole atmosphere. And Joyce himself intends to write a page of 'the moral history' of his home country by showing every bit of 'dear dirty Dublin' to the Dubliners themselves and all the readers so that they may realize present state of the city.

However, re-reading of *Dubliners* is likely to help the reader realize the implied hope for the recovery from this paralytic situation. The possibility of recovery becomes clear when we read the short stories of *Dubliners* with a certain idea of the Bible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chronotope" presented by Mikhail Bakhtin.

The boy narrator in "The Sisters" is fostered by his uncle and aunt due to his father's absence. He also receives religious education from Father Flynn who seems to have an intention to make the boy his successor. Although the boy seems to live a passive life as such, it also seems clear that he is in the same chronotope with Samuel in the Old Testament. That is to say, the image of Samuel, the last judge and the first prophet of Israel, who was called and educated as a new spiritual and political leader for the paralyzed Israel, is projected on the boy narrator in the story.

In brief, the dialogical characteristics of Bakhtin's chronotope have enabled us to perceive the unconscious desire for the recovery of faith in an individual sense,

a new Reformation in a collective sense, and further more, the appearance of a new prophet, who will stand in the center of the changes, as was shown in “the Book of Samuel” in the Old Testament.

■ Key words : James Joyce, *Dubliners*, “The Sisters,” “The Book of Samuel,” prophet, Bakhtin, chronotope.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자매들」, 「사무엘 서」, 선지자, 바흐친, 크로노토프)

## 필자 소개

### 김철수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영문과 석사, 조선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James Joyce의 소설에 나타난 화해의 추구: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과 *Ulysses*를 중심으로.” 현재 전주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중. charles@jj.ac.kr

### 윤희환

서울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Radiant Triviality: Epiphany in Joyce.” 저서로는 『간이역에서』(대학사, 2003), *Like a Fish, Like a Lizard* (대학사, 2003)가 있음. 현재 강남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중. justiny@kangnam.ac.kr

### 김 석

미국 New York University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Joyce and the Post-Love Affair: Literature, Globalization and the Question of the Universal.”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출강중. askpeer@yonsei.ac.kr

### 민태운

미국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Subjectivity, Language, and Society in Joyce's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Ulysses*.” 저서로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전남대학교 출판부, 2001), 『조이스의 더블린: “더블린 사람들” 읽기』(대학사, 2005) 등이 있음. 현재 전남대학교 영문과에 재직중. taeun@chonnam.ac.kr

### 김상욱

미국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논문은 “The Parent-Offspring Conflict in Joyce's Fiction.” 현재 경희대학교와 덕성여대에 출강중. kimswook@hotmail.com